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



'붓다' 바로 알고 경전 읽기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경전은 그 양이 지극히 방대하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크게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초기불교 경전류와 대승불교의 경전류로 분류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경전이 석가모니 붓다의 입멸 후 500여년 이후에 성립된 것임에 비해, 초기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붓다의 육성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불교 경전으로 한역 아함경과 팔리어 니카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초기경전 중에서 주요한 경전을 선별하여 앞으로 독자들과 그 내용을 음미하고자 한다. 경전의 성립 시기나 구성 양식에 관한 문헌학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전 속에서 붓다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 어떻게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하는 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붓다의 가르침을 하나씩 되새겨 보고자 한다. 독자들의 피드백이 있으면 기꺼이 반영하고자 한다.

오늘은 붓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붓다의 주민등록상의 제불(諸佛)과 구별하기 위하여 '석가모니 붓다'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 붓다라는 말은 대체로 석가모니 붓다 한 분에게 사용되었다.

다음은 잡아함경 제4권에 실려있는 경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어떤 브라흐민이 길을 가다가 비범한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의 주인을 알고 싶어 발자국을 따라간다. 드디어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있는 사람이 발자국의 주인임을 발견하고 붓다에게 질문을 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입니까?" 붓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당신은 용입니까?"라고 다시 묻는다. 붓다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신은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붓다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다. 대답을 듣고 당황해 하는 질문자에게 붓다는 말한다. "그러한 존재들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의 잠에서 깨어난 자(붓다)이다."

욕망, 쾌락, 재산, 명예 등 온갖 번뇌의 미끼에 걸려들어 잠이 든 우리 중생에게 눈을 뜬 붓다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끼를 놓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붙잡고 깨어나지

붓다는 번뇌의 잠에서 '깨어난 자'
無明에서 벗어나려면 지혜 필요

성씨는 고타마(Gotama)이고 이름은 싯달타(Siddhattha)였다. 우리처럼 붓다는 부모형제가 있었고 아내도 아들도 있었다. 붓다라는 말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였다. 붓다는 동사 어근 'Budh'(자각하다, 깨어나다)에서 유래한 명사이며 자각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대개 'the Awakened'(깨어난 자)로 번역한다. 일차적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뜬 사람이라는 말이지만 종교적으로는 무명의 잠에서 깨어난 자라는 존칭이다. 따라서 무지의 상태에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기만 하면 누구나 붓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불타(佛陀)란 한역어는 붓다(Buddha)의 음역이고 의역어로는 '覺者'(눈을 뜬 사람)가 한역 경전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한역 경전에선 대체로 음역어인 불타가 더 많이 사용되었고 줄여서 '佛'(불)이라고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불타가 부처라고 음사되었고 여기에 존칭 접미사 '님'자를 붙여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불교의 역사상 붓다란, 일체 중생의 스승으로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존경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붓다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역사적 존재인 불교의 개조(開祖)를 다른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뜬다. 그러나 번뇌의 잠에서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번뇌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둡고 보이지 않으나 눈을 뜨면 환하게 보인다. 번뇌에 덮여 있으면 무명(無明)이고 번뇌의 장막을 제거하면 지혜의 빛이 쏟아진다. 불교가 다른 신앙종교와 달리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온갖 번뇌에 잠이 들게 하는 무명을 제거한 자가 붓다이므로 우리 범부도 무명의 잠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혜를 계발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필자인 안양규씨는 서울대 종교학과(89)와 동국대 불교학과(91)를 졸업, 93년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98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과 객원연구원,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전임강사를 맡고 있다. <붓다의 비유설법>, <The Buddhanew's Last Days>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자기 본분 지켜야 '참 사람'



◇ 불갑사의 조실 주석처인 염화실 마루에서 불갑산을 응시하는 수산 스님.

지상 백고좌

수 산 스님

(불갑사 조실)

갑신년 정초, 큰스님 인사차 남녘 나들이 길에 나섰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불갑사 가는 길에 불현듯 '마라난타 존자가 바닷길 헤쳐 서쪽에서 왔던 뜻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천년 세월을 건너뛰어 불갑사에는 수산지종(壽山 知宗) 스님이 조실로 주석하고 계신다. '마라난타 서래의(西來意)'를 화두삼아 염화실에 들어서자 큰스님이 반갑게 맞이한다.

"방장스님(서옹스님) 장례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모두들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방장스님은 평소 공부뿐이셨고 가는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달 입적한 서옹 스님 말상주였던 수산 스님은 83세 노구에도 장례기간 내내 조문객을 맞이하고 백양사 전통의식에 따라 장례를 총괄했었다. 스님의 인사말이 아직도 상중임을 짐작케 한다.

지난 계미년은 불가(佛家)에 있어 매우 불행한 해였습니다. 오래오래 계셔서 도제중생(度濟衆生) 하셔야 할 큰스님들이 너무 많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옛날부터 수행을 열심히 잘한 분들이 죽순이 한꺼번에 나오듯 오셔서 중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 두분가는 것은 세연따라 가시지만 약속이나 한 듯 여러분이 같이 가신 것은 내가 출가한 이후 처음 겪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불행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공덕 뿐
분별심 버리면 지상극락도 만들어

지난해는 나라도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좀 나아질까 하면 '도로 죽 떠먹은 자리'였습니다. 세속에서 지난해를 한마디로 '우왕좌왕'이라고 표현했다던데, 이는 정치하는 이에게 세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던 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중심 잡아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예전에 보면 12달을 12지간으로 나누어 자월(子月, 11월)을 신년으로 치고 설을 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춘하추동 계절이 안맞아요. 그래서 인월(寅月,1월)을 신년으로 맞았습니다.

정초가 되면 사찰도 바쁩니다. 큰절에는 전각이 많은데 설날 3일전부터 각단에 돌아가면서 불공을 올립니다. 절에서는 예전부터 떡국마지를 설날이 아닌 전날, 그믐날 사시에 올립니다. 설날 새벽엔 과일과 떡으로 마지올리고 예불 끝난 뒤 대중이 한꺼번에 세배하는 '통알'을 합니다. 절에서는 떡국에 고비를 넣습니다. 고기를 넣을 수 없으니 봄에 고비를 뜯어 말렸다가 떡국에 넣고 끓이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이번 설날에 불자들도 한번 해보세요.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참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어느 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소욕지족(少欲知足)이죠. 자기 살만큼, 가족이 먹고 살만큼 주어지면 더 이상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아야 나라나 국민 다같이 잘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쪽에서 부족한 사람이 생기고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절에서 고암 스님과 정진할 때였습니다. 새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베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냄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냄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가정용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7일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2월 12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 <선가귀감>의 첫 구절에 나오는 '밝고 신령하고 죽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그 놈'에 미쳐 평생 수행에만 매진해 온 수산 스님.

벽예불이 끝나면 큰방에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수좌가 어째서 시끄러운 염불을 하시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참선과 염불이 한 도리인줄 모르고 어째서 매사에 분별심을 내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실인 인곡 스님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가까이 다가오라고 해 놓고는 냅다 한방 먹이시더군요.

사람들이 분별심을 모두 버린다면 우리 불교도 정치도 다 잘 될 것이고 남북통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지상극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물욕 권력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마음 비우는 불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이름 이런 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 것도 못가져 갑니다.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덕이에요. 열심히 공덕 지으면 반드시 그 마음자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태풍이 많습니다. 예전엔 태풍을 왜바람이라 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이죠. 입춘으로부터 210일째인 백중 무렵에 태풍이 오면 과일은 물론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때가 결실 때인데 왜바람 올까봐 걱정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태풍 이름도 많고 아무 때나 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도 원인이지만 우주가 생성과 파괴를 반복하는 성주괴공(成住壞空)에 따라 변태(變態)작용으로 괴공(壞空)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뀐 지천태(地天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뒤바뀐 세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고 우리는 불교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근본은 변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자꾸 변태를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상전벽해(桑田碧海) 입니다. 요즘 원자(原子)라 하는데 지수화풍(地水火風) 원자에서 다시 일어나 우주가 건립됩니다. 그런 후 몇 억만년을 지내면 공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기를 여태까지 몇 억만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성(自性)자리입니다. 자성자리는 변치 않는데 업력(業力)으로 인해 몸과 마음으로 지어 사람이 자꾸 변동됩니다. 다시 말해 성주괴공이 돌고 돌더라도 근본자성은 변하지 않는데 업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놈, 자성자리를 찾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기의 본성에서 흘어져 나간 놈을 밝히고 잡는 공안이 있는데 1700가지나 됩니다.

예컨대 조주 스님에게 납자들이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요긴한 목적인지 일러주십시오'라며 공부한 것, 성불한 것을 일러달라 물으면 '뜰앞의 잣나무'라 했습니다. 조주 스님 방 앞에 잣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는 도인이 뜬금없이 '뜰앞 잣나무'라 하니 뭔 뜻일까? 잘

잘못된 생각이 세상 시끄럽게 해
변치않는 '자기 본성' 찾아내야

못했다가는 한방 맞겠고 또 도인이 범부와 같이 허튼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화두로 들어 정진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꽉 막힙니다. 이때 막힌 놈을 뚫고 나가야합니다.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 백 척이나 되는 높은 대 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사를 바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화두(話頭)를 글 읽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탁 놓고서 대신심, 대분심, 대용맹심 아니고는 공부 안됩니다. 나도 잠자리에 들때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혼자서 묻고 답합니다. 오래된 돌덩이야 정원에 놓으면 보기에 좋지만 이놈의 몸뚱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결국 썩어 사라지고 자신이 지은 업만 남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던 수산 스님이 갑자기 묻는다.

"선생, 어떤 물건이 여기 왔는고?" 하더니 갑자기 '억' 하며 할을 하신다.

"저도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모른다고 하면서 왔어?"

"…."

"여기에 송장 끌고 온 그놈은 밝고 신령하고, 죽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놈이어서 그놈만 찾으면 성불하는 것이여." 영광=이준엽 기자

수산 스님의 수행법

수산 스님은 팔순의 세속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행과 후학 제접에 열정적이다. 스님은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할 때 공부도 된다"며 "자기 몸을 천하게 여겨야지 자기 몸을 위하면 몸을 버린다"고 건강비법을 소개한다.

스님은 참선과 호흡을 기본으로 30여 가지 동작을 스스로 개발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선정진과 병행하고 있다. 팔을 펼치고 몸을 구부리는 등의 동작은 그냥보면 일반적인 스트레칭과 달라 보이지 않지만 동작과 호흡의 조화는 쉽게 따라하기 어렵다. 그 몸동작이 젊은이 보다도 더 부드럽고 자유자재해서 스님의 운동법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차의 대가로서 '선다일미(禪茶一味)'의 평상심으로 살아온 것도 건강을 지키는 수행법이리라.

스님은 백양사 만암 스님을 시봉하면서 익힌 수행력을 바탕으로 겉으로 표 안내고 정진하면서 수행자의 기본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수행승이다. 모두들 스님에 대해 "색심과 재물욕이 없다"고 한다.

스님은 평소 '언행일치'와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스님은 사중 스님들에게도 "수행에 신경 써라. 만약 사중에 소임을 맡아 일할 때는 공심으로 하라"며 "개인적인 욕심버리고, 게으르지 말고 조석예불과 대중공양 잘 참석하면 중노릇 절반은 하

"몸 천하게 여겨야 건강"
30가지 동작 직접 개발

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12 년째 가까이서 시봉하고 있는 만당 스님(불갑사 주지)은 은사 수산 스님이 만암 스님 말씀을 자주 하셔서 언젠가 호기가 났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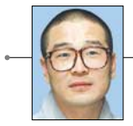
"스님은 만암 스님에게 뭘 배우셨기에 항상 만암 스님, 만암 스님 하십니까. 배운 진수가 뭡니까"

"이리와봐, 내가 가르켜 줄게" 하시기에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따귀 한대를 맞았다. "이게 답니까" 했다가 또 맞았다. 그런데 아프지 않더란다.



◇ 83세의 세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한 큰스님의 도인술 동작.

수산 스님은 192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38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의 상좌인 법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수덕사, 정혜사, 다보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수선정진했다. 고불총림 백양사와 부안 개암사, 완도 신흥사 등의 주지를 지냈고, 1993년 정광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불갑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보인 스님

보인 스님은 입이 유난히 큰 것만큼 입담 또한 유별나다. 그는 말을 할 때 거의 쉬는 법이 없다.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 수록 재미가 난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할 때에는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말이 빠르기도 하지만 말을 하다가 워낙 웃기를 잘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좋아지면 다 좋아 보인다고 보인 스님이 내게는 꼭 그런 사람이다. 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그것이 내게는 험담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아마도 내가 스님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들은 보인 스님에게 한번 걸리면 그의 '왕이빨'에 끌장난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나는 그의 '왕이빨'에 걸려도 무사할 것만 같다.



그림 · 문병성

그런 그가 어느 날 내가 있는 절에 찾아왔다. 공양 때가 되어 공양을 하는데 그는 생식(生食)을 한다며 야채를 좀 잘게 썰어 달라고 했다. 그의 식사는 참으로 간단했다.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쌀가루와 우리 후원에서 내놓은 야채 썬 것이 전부였다. 예전에 골고루 잘 먹던 그가 아니었다. 그렇게 식생활이 달라진 것이 궁금했다.

"왜 식생활 습관을 바꾸었어요? 전에는 익힌 것도 잘 드시더니 왜 오늘은 영 안 드세요? 말수도 아주 적어지고…. 그 연유가 뭐예요?"

보인 스님은 씨익 웃으며,

"나 임파선 암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을 쓰느니 생채식을 하자고 마음먹었지요. 꽤 여러 달 됐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걸 느껴요. 암이라고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생활습관을 바꾸면 암도 저절로 낫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즐거워요." 스님의 말을 듣고, 임파선 암에 걸려 말도 못하는 스님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말 못하는 보인 스님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나야 하는데 말 못하는 보인스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싱거울까 생각하니 끔찍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건강관리 잘 하라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어디 암자로 간다고 길을 떠났다. 그 후 나는 풍문으로 그의 근황을 접하며 그가 건강하기만을 빌었다. 몇 달이 지나 스님이 다시 우리 절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의 그의 모습은 전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아주 활기 차고 기쁨에 들떠 있었다. 나는 아마도 생채식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모습에 나도 덩달아 기뻤다.

"어, 오늘은 정말 좋아 보이는 데요. 분명히 생채식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지요."

스님은 씨익 웃으며 말했다.

"생채식으로 좋아진 거라면 나도 좋게. 그게 아니야.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 가 다시 검사를 해보았는데 임파선 암이 아니래.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 보았지. 그 병원에서도 역시 암이 아니래잖아.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 나도 반신반의하며 처음 진료를 받았던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다시 갔지. 가서 다른 병원의 검사 결과를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다시 촬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찍고 판독해 보니

속사포 같은 입담으로 유명
암 오진 확인하고도 '허허'

까 역시 임파선 암이 아니라는 거야. 전에는 임파선 암이었는데 지금은 임파선 암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글쎄 그때는 판독을 잘못 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냥 왔냐고 물었다. 지난 육개월간 마음 고생한 것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라도 받았어야지 하며 내가 더 열이 나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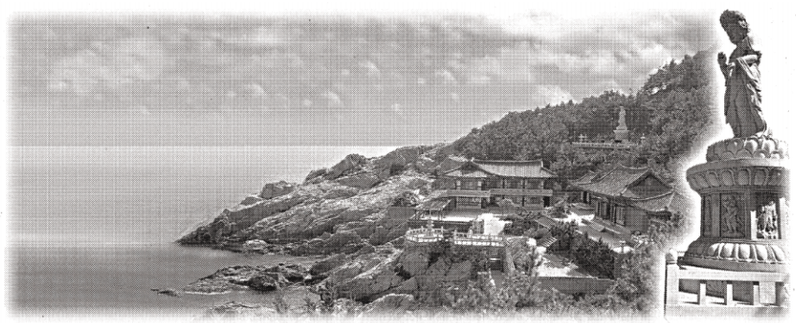
"나도 그러고 싶었지. 정말 지난 육 개월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래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게 보이는 거야. 고생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것이고 암이 아니라는 이 기쁨은 내게 다가온 선물과 같은 것이잖아. 의사 선생님이 그 순간 산타 할아버지 같더라니까."

보인 스님은 정말 부처님 같은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암에서 해방된 그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오진한 병원에 대해서 그토록 관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스님은 어쩌면 그의 거침없는 입담만큼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냥 있는 사실을 실감나게 전한 것뿐인데 속좁은 우리가 씹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입담의 재미가 그의 넓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스님은 이제 다시 살아났다. 스님은 아마 무지하게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담도 다시 불을 뿜을 것이다. 만나면 즐거운 그 입담을 다시 듣게될 해제의 그 날을 기다린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숭이 숭이 내리는 눈이 딴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 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묘정봉에 오른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 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